



한국경찰연구원 어제 제주형 자치경찰제 연구용역 발표

“국가경찰 권한·인력 이관해야”

지역실정 맞는 치안 정책 필요성 따라 주문

사무분담을 놓고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찰연구원은 30일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 사무(교통·아동청소년·생활안전 등)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분석, 실질적인 이원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행복치안센터 24시간 운영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책임구역 지정 등을 놓고

고 최근까지 갈등을 벌였고, 현재는 실무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찰연구원은 먼저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당시처럼 자치경찰단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제주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 교통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겼고, 인원 268명도 파견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단을 ‘본부’ 혹은 ‘대’로 격상시키고, 제주경찰청이 갖고 있는 자치사무와 지구대·파출소까지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일률적 치안서비스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경찰연구원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사무는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모델과 같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는 물론 모든 수사까지도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법 제포 시 주거수색권한과 긴급체포권, 수배자 체포권을 부여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는 지방분권 시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했고,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개장 하루 전… 피서객 북적 해수욕장 개장을 하루 앞둔 30일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이젠 본격 여름”… 오늘 해수욕장 개장

도내 12곳 8월말까지 운영… 실내 다중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해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12개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제주지역 지정 해수욕장은 광치, 금능, 김녕, 삼양, 월정, 이호테우, 함덕, 협재, 신양섬지, 중문색달, 표선, 화순금 모래 등 12곳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운영된다.

해수욕장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해수욕장에는 생활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

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파라솔 등 차양 시설도 최소 1m 이상 떨어지도록 권고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 및 민간 수상안전요원 등을 지난해 대비 9명을 늘려 330여 명 배치하고, 수상안전 보트 등 안전장비 22대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지정 해수욕장 이외의 연안 해역에는 지자체 안전요원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제주시는 한담, 세화, 판포포구 등 10개소에 44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며 서귀포시는 황우지, 논짓물, 소금막 해변 등 10개소에 안전요원 30여 명을 배치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대비 범죄예방활동 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함덕·이호·협재해수욕장에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범죄예방 순찰과 거점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초동조치를 병행하며 자치경찰단 ‘탐라 관광순찰대’와 해수욕장별 주 1회 합동으로 위력 순찰 및 거점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CCTV관제센터 화상 순찰과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공공화장실 비상벨 점검 등 해수욕장 주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13년 전 20대 女 다리위에서 추락사 경찰 재수사 통해 살인혐의 2명 송치

“사망자 명의 보험 가입 다리 난간 구조 등 의문”

13년 전 20대 여성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제주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지난 2009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B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

난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고에서 A씨를 30m 아래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A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

경찰은 2011년 초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8년,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숨진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은 점 등에 비춰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다리 난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체조선수와 특공대원 전문 산악인, 스텐트맨을 동원했고, “앉을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현재도 전무한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증거로 보서는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건 말고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치매노인 실종 14시간만 발견

새벽시간 집을 나선 80대 치매 노인이 14시간 만에 발견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3시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평길

입구 저수지 부근 풀숲에서 실종 신고된 A(81)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1시쯤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오

전 4시52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형사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과 수색대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을 실시했다.

김도영기자

제주 코로나19 또 확산 조짐

최근 일주일 확진자 전주보다 8% 증가

제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2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

자 수는 23만919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843명이 확진됐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0명이다. 이는 전주 대비 69명이 증가한 수치다.

연령 별로는 0~9세(8.4%), 10~19세(16.1%), 20~29세(13.3%), 30~39세(16.2%), 40~49세(15.6%), 50~59세(13.2%), 60~69세(10.6%), 70~79세(4.3%), 80세 이상(2.3%)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756명이며 이중 74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2명, 치명률은 0.08%를 나타내고 있다.

강다혜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에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수확기 때도 이젠 중성화 비료!

토양개량 및 토양 pH조절

보보입상 100% 수용성

(10-5-25+특수물질 8종)



마늘·양파·더덕·감자·비데기 일때 300~400평 1포 사용



특수 칼리(K) 25% 함유!!

빨리 용출되는 칼리부터 천천히 방출되는 칼리까지 여러종류의 칼리가 들어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